



해외양돈뉴스



※미 국

돼지가격 상승세 지속

미국의 돼지 값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평균 돼지 값은 100kg기준 100.5달러로 전년동기 95.1달러 보다 5.6% 가량 올랐다. 도체 값도 지난해 같은 기간 142.7달러 대비 8% 비싼 154.2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를 1, 2분기로 나눠 비교했을 때 돼지 값은 2분기 108달러로 전분기 93달러 대비 무려 1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미국의 돼지 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사료 곡물 값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료곡물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미 돼지 값이 하반기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6월 돼지 값은 110.1달러로 전달 111.7달러에 견줘 1.4%, 도체 값은 166.5달러로 한달전 169달러 대비 1.5%가 각각 떨어졌다.

돼지고기 수출 감소세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감소했다. 최근 미국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4월말 돼지고기 수출량(부산물 포함)은 41만5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만1천톤보다 4% 가량 적었다. 그러나 수출금액은 98만5천달러로 전년 동기 91만2천달러 대비 8% 증가했다.

이처럼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이 감소한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4월말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24%, 3%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한국 중남미로의 수출은 늘어 각각 12%, 7%,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본

곡물가 인상으로 사료가격 인상분 보전

세계적인 곡물가 인상으로 사료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배합사료 가격 인상분을 특별기금으로 보전키로 했다. 최근 일본 농업신문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중앙기구인 전농은 '전국 배합사료 공급안정기금'을 활용, 올해 3/4분기 배합사료 가격 인상분 중 일부를 보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분기 대비 농가 실질부담액이 104%를 넘었을 경우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돼지고기 수입량 감소

올해 4월 일본 돼지고기 통관량은 5만8천723톤으로 전월 6만1천톤대비 3.9% 감소, 전년동월 6만5천여톤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냉장 돼지고기는 1만9천966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고, 냉동 돼지고기는 3만8천757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6.6% 감소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수입량은 24만8천665톤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이 8만9천908톤, 덴마크 5만1천868톤, 캐나다 5만5천247톤, 멕시코 1만4천320톤, 기타 3만7천322톤 등이 수입됐다.

※E U

돼지 사육두수 꾸준히 증가

유럽연합(EU)의 돼지 사육두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 EU 25개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1억5천379만5천두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임신돈이 유일하게 179만두로 전년대비 1.5% 감소했으며, 번식용자돈은 0.7% 증가한 1,497만두, 미경산돈은 2.7% 증가한 163만두, 20kg 이하 자돈은 0.7% 증가한 4,253만두, 비육돈 등이 1.7% 증가한 5,915만두로 조사됐다.

□ EU의 돼지 사육두수(2006.12) (단위 : 천두, %)

국명	사육두수	전년대비	국명	사육두수	전년대비
독일	26,602	△1.4	포르투갈	2,295	△2.1
스페인	26,034	4.6	아일랜드	1,705	1.6
프랑스	15,009	△0.8	스웨덴	1,662	△8.0
덴마크	13,613	8.0	핀란드	1,435	△0.3
네덜란드	11,220	2.0	폴란드	18,813	0.5
이탈리아	9,281	0.9	루마니아	6,905	4.6
벨기에	6,355	1.6	헝가리	3,987	3.5
영국	4,691	△1.0	체코	2,741	0.8
오스트리아	3,139	△0.9	EU 25개국 (합계)	153,795	1.5

※ 세계

국제 곡물가 10년간 '고공행진' 전망

옥수수과 대두 등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세가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처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계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FAO(식량농업기구)가 공동 발표한 농업전망 보고서에서는 곡물가격 상승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바이오 연료용으로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곡물 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는 10년간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등 곡물

의 양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 대만

돼지 폐사 보험 실시

대만이 올해부터 돼지 폐사 보험을 전농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최근 대만 농민위원회는 올해부터 돼지 품종, 연령, 용도에 상관없이 '돼지폐사보험의무화 계획'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농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570만마리를 가입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보험은 돼지 폐사에 따른 양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폐사 돼지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 폐사 돼지의 식용 사용을 크게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 브라질

양돈업 10년간 두배 성장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05년 브라질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70만8천톤으로 94년 133만톤에 비해 104% 늘었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이에 대해 90년대 이후 옥수수와 대두 등 사료 곡물가가 하락해 축산물의 생산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 4위 규모의 돼지고기 생산, 수출국으로 '05년 76개국에 총 116천500만달러어치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양돈**

